

정·맛·흥 듬뿍 강진으로 '맛있는 여행'

18~19일 오감통서 '콩과 떡 이야기 여행'

된장 담그고 떡 만들고 온가족 즐거운 체험
다양한 민속놀이·버스킹 공연 오감 만족
가우도 한바퀴 힐링...바다위 짬뽕 짜릿

남도음식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찾아왔다. 맛의 1번지 강진군이 된장을 담고 떡도 빚어보는 체험자리를 마련하고, 남녀노소 모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낭만과 음악이 시나브로 흐르는 감성여행 1번지 강진군은 오는 18~19일 이틀동안 옛 추억과 아름다운 정을 만끽할 수 있는 '콩과 떡 이야기 여행'을 펼친다. 강진군은 특히 지난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을 대표하는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도 준비중이다.

◇관광객 중심 참여프로그램 통해 '강진의 정' 듬뿍 =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진행 중인 강진군은 옛 추억과 어머니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건강 10대 농식품 문화마을 강진'을 주제로 강진의 콩과 떡 이야기 여행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강진을 문화복합형 시장 오감통 일원에서 연다. 군은 200년전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백성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면서 경세유표를 저술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쫄떡 200명분 나눠주기를 비롯한 콩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군은 옛 추억을 담은 두부 만들기부터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콩 볶아주기, 전통 된장 제조 명인과 함께하는 나만의 된장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된장 마을이 있는 질량, 군동, 병영, 도암면을 잇는 감성 투어코스도 진행한다.



강진읍내에 있는 한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빚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전통음식 명인 백정자씨를 비롯한 강진지역 '어머니'들이 총출동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어머니들은 맛과 영양이 어우러진 전통된장을 함께 만들어 '강진의 맛'을 전수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된장을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선물 보내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정자 전통음식 명인은 "자연이 안긴 천혜의 땅 강진에서 직접 키운 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은 품질 또한 전국 으뜸"이라며 "이런 기회를 통해 강진의 정과 맛을 알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겨울내음과 함께하는 강진마을의 하루'를 테마로 진행되는 된장마을 탐방은 전국 제일의 실력으로 무장한 강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진행한다. 강진군은 또 이번 행사에서 강진의 맛있는 떡을 알리기 위해 지역내 떡 가공업체들과 함께 전시·판매는 물론 떡매치기, 떡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강진읍시장 활성화 및 방문객의 흥을 돋우기 위해 시장 종합동 상설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이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프로그램들이 즐비하다. 특히 메주를 활용한 포도폰에서 스마트폰(SNS) 촬영대회를 통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될 수 있고 현장접수를 통해 강진 농산품도 증정한다. 행사 사이사이 군청 미래산업과 주관으로 버스킹 공연도 진행한다. 강진군은 이번 '강진의 콩과 떡 이야기여행'이 콩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감성체험을 통한 지역 농수특산물 판매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강진읍시장과 오감통내 공간에 강진산 제품들을 전시·판매한다. 특히 도농 직거래 택배시스템 모델로 자리잡은 '초록민을 직거래지원센터'를 오피라인까지 풀가동한다. 초록민은 온라인으로 이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고객 12만명을 대상으로 강진 브랜드쌀을 포함해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행사기간에도 '찾아가는 초록민을 이동장터'를 운영해 고객들의 편의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재정 강진군항토축제추진위원장은 "지역내 농 생산농가와 떡 가공업체들이 적극 나서고 군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통한 농가와 업체들의 직접적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우도·짬뽕 "볼 것, 탈 것도 많다"=맛을 보

으면 눈도 즐거워야 강진여행의 진면목을 본 것이다. 놓칠 수 없는 전국최고의 핫 플레이스는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고, 올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대표 관광지 100선에 선정한 가우도다. 지난해 무인계축기로 확인된 방문객만 73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우도는 강진 관광·여행의 확실한 느낌표다. 대구면 저두와 도암면 망호 양쪽에서 두 개의 출렁다리로 걸어 들어가는 경험에다 지난 해 10월 완공된 가우도 내 세계 최대 규모의 청자모형 타워와 이 안에서 출발하는 전국 최장 길이의 해상 하강체험시설 '짬뽕'에 몸을 실어보는 것은 그 어느 추억보다 짜릿하고 긴장감을 준다. 이와 함께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민화박물관, 강진읍내 영랑생가와 사의재, 도암면 다산초당과 백련사, 지난해 여름 개장한 도암 석문산 사랑 구름다리, 성전면 국보사찰 무위사와 강진다원, 백운동 별서정원도 꼭 둘러봐야할 강진의 명소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워 특단의 대책으로 올해를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세부프로젝트로 강진의 멋과 맛을 조금이라도 더 전국에 알려 지역내 소비촉진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강진의 콩과 떡 이야기여행 역시 지역 농수축산물의 판매확대와 지역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전통된장마을인 강진군 군동면 신기마을 주민들이 메주를 말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가우도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청자타워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불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불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불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